전주기전대 김현도 학생, 하트세이버 선정

전주기전대학 김현도 학생(응급구조과 3년)이 구급차 동승 실습 중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Heart Saver)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을 통해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된다. 수여 기준은 응급처치를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및 완전 회복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김현도 학생은 덕진 119안전센터에서 4주 동안 구급차 동승 실습에 참여해 119구급대원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진행

농협무주군지부는 20일 무주군청 앞 광장에서 출근하는 직원과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복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김범석 농협무주군지부장,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김성곤 구천동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먹밥 300여개를 나누고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홍보 등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캐나다 거주 설재숙씨,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출향인 설재숙(49)씨가 지난 20일 무주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설씨는 "내가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무주는 언제나 나의 그리운 고향"이라며 "지금은 멀리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무주가 잘 되고 무주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향에 온 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 좋은 일을 하고 가게 돼 기쁘다"라고 전했다.
무주가 고향인 설씨는 중학교까지 무주에서 다녔으며 대학 졸업 후 안성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무주읍 소재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돌봄 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캐나다 이민 후 가족(배우자, 자녀2)들과 생활하고 있다. 현재 무주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유소년 말산업축제, 23~24일 개최

한국경마축산고(운봉읍 황산로) 일원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승마산업 꿈나무를 발굴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국 유소년 말산업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이 대회는 한국경마축산고(교장 박준호) 주최로 미래 승마의 주역 양성, 국산마의 우수성 홍보,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선진국형 레저 산업으로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종목은 장애물 20m, 40m, 60m, 80m, 90m, 100m와 릴레이 경기 등 총 13종목에 걸쳐 360여명이 대회에 참가해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눔·기쁨·보람 더 넓게 펼치도록 노력"

신임 이기성 완주군자원봉사센터장 선출

이기성 (사)한국새농민전북특별자치도회장이 제5대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당선됐다.
20일 완주군은 최근 자원봉사센터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기성 센터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8월15일까지 3년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굴곡의 시련 속에서 완주군자원봉사센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역할을 다해주신 소길영 전임 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나눔과 기쁨, 보람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이 이사장은 40년간 화훼분야에 종사하며 완주군농업인품목연합회장,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한국새농민회전북특별자치도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북아너소사이어티 101호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군은 20일 제35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은 권익현 군수와 미스변산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부안의 아름다움 널리 알린다

부안군, 입상자 7명 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

부안군은 20일 제35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미스변산 선발대회는 부안의 관광 명소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행사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35회째 개최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위촉식에서 미스변산 진 김다형·선 고보경·미 전해경·전북도민일보 김다연·지엘바이오테크 하다현·제일건설 김소연·부안참뽕 김수정씨까지 총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미스변산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안군의 문화와 관광 등 부안만의 매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7명은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영상 촬영을 마쳤으며 영상은 SNS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미삼아, 운동하고 워킹하자'

정읍보건소,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읍시보건소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시민을 대상으로 '재미삼아, 운동하고 워킹하자'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성인비만관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노르딕 워킹과 폼롤러 스트레칭, 영양교육으로 구성돼 12주간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노르딕 워킹은 북유럽의 스키선수들이 하계 훈련을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전용 스틱을 사용하여 걷는 전신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반 걷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노르딕 워킹과 함께 폼롤러를 활용한 근력 운동, 그리고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영양교육과 개인별 영양 상담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여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샘골건강센터 건강생활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식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장수호)는 20일,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수)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식'을 갖고 나눔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인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액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운봉읍의 소외된 이웃에 사용된다.
올해 8월까지 협의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밑반찬 전달, 선풍기와 여름 이불 지원, 100가구에 삼계탕 지원, 100가구에 지역 상품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 등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위생업소 칼날 연마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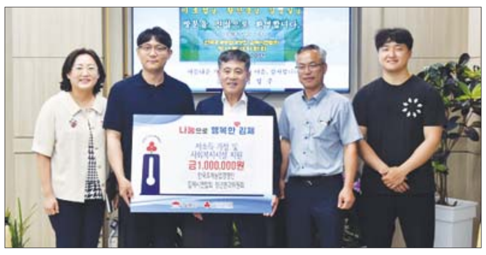
남원시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업소 칼날 연마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일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1층에서 8월 28일(오후 1시~6시)까지(휴일 제외) 운영되며,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식도 및 가위를 업소당 5개로 지원, 읍·면 지역 운영 일정과 장소는 8월 27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 방문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구분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및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찬일 신임 김제 백산면장, 현장 행정 업무 돌입

신임 정찬일 백산면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관내 38개소 경로당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면정 업무를 시작했다.
정 면장은 지난 7월 4일 인사 발령 뒤, 6주간의 핵심 리더 교육을 수료하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3주 이상 지속된 폭염에 취약하신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묻고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및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냉방기기 정상 가동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백산면 마을 어르신들은 "취임 후 바쁜 일정 가운데 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정찬일 면장에 감사하다"며 "우리도 살기 좋은 백산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 면장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염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백산면장으로서 앞으로 자주 찾아 뵙고,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HR E&I, '사랑의 집 짓기' 후원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일 만경읍에 소재하는 ㈜HR E&I(대표 김동열)이 지역 내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협업해 추진 중인 '깨·소·금(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다자녀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HR E&I 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저소득가정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생계비 후원 등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후계농업인 김제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청년위원회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백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호섭 회장, 황진웅 청년위원장 등 임원과 농촌지원과 전금미 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기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진웅 청년위원장은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이호섭 회장과 청년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